

뉴스홈 | 최신기사

'골 넣는 수비수' 김진수, 3년 만에 두바이서 벤투호 승리 견인

송고시간 | 2022-02-02 01:03



장보인 기자

기자 페이지

2019년 아시안컵 이어 같은 장소서 골 맛...전반 수비 실수 '결자해지'**한국, 시리아 2-0 제압하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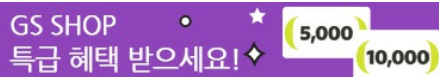
김진수의 선제골!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선제골을 넣고 벤치로 뛰어가 있다. 2022.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진수(30·전북)가 3년 만에 두바이에서 또 한 번 벤투호를 살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 원정 경기에서 김진수의 결승골과 권창훈(김천)의 썸머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최종예선 8경기에서 6승 2무(승점 20)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최소 조 2위를 확보,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이자 통산 11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이날 한국의 승리를 이끈 귀중한 득점은 김진수의 머리에서 나왔다.

0-0으로 맞선 후반 8분 김태환(울산)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진수가 헤딩 골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폴백 김진수가 53번째 A매치에서 터트린 두 번째 골이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관악...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공교롭게도 김진수의 A매치 데뷔골도 이날 경기가 열린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나왔다.

그는 2019년 1월 22일 바레인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이용(전북)의 크로스에 이은 헤딩 결승골로 한국의 2-1 승리에 앞장선 바 있다.



환호하는 김진수

(두바이=연합뉴스) 김진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득점을 한 뒤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3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골 맛을 본 김진수는 이날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수에 가담했다.

전반 14분 골 지역 왼쪽에서 시동한 강력한 원발 슛은 골대 옆 그물을 출렁였다.

전반 24분에는 아쉬운 수비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김진수가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에게 백패스한 공을 시리아 마흐무드 알 마와스가 쇄도해 오른발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골망을 벗어났다.

가슴을 쓸어내린 김진수는 직접 결승골을 책임지며 전반 실수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날카로운 원발 슛으로 추가 골까지 노려보기도 했다.

김진수는 이번 최종예선 8경기 중 5경기에 출전해 벤투호의 뒤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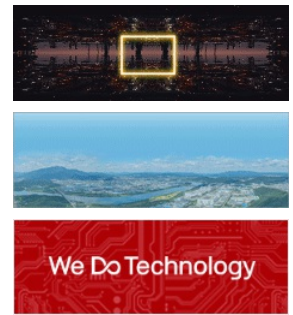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던 2020년 12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한동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그는 지난해 9월 벤투호로 돌아왔다.

지난 시즌 임대 신분으로 친정팀 전북 현대에 복귀한 뒤 왼쪽 풀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지난 2019년 12월 동 아시안컵 이후 1년 9개월 만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은 김진수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란과 최종예선 4차전(1-1 무)에서 대표팀 복귀전을 치른 그는 꾸준히 제 몫을 하며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탰다.

boin@yna.co.kr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1보] 한국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카타르행 확정
[월드컵축구 전적] 한국 2-0 시리아
'김진수-권창훈 골' 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종합)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태극전사 땀방울로 이룬 카타르행
종가 잉글랜드-아트사커 프랑스도 못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이제는 본선이다'...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
'3년 5개월' 최장수 벤투의 독심, 태극전사 맞출듯 압하다
늘 험난한 '월드컵 본선 가는 길'...카타르도 쉽지않은 않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1:03 송고

#김진수 #벤투호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자'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
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26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59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0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40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갈채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립 #총

계약관리